

제 9 회

# 전국 현상모집 입상 작문

84 년 도

— 발명사상앙양 보급을 위한 —

- ... 「월간 발명특허」 편집실에서는 제9회 전국 초·중학생...
- ...작문·만화 현상모집 수상작품중 최우수상·우수상·가...
- ...작상 수상작품을 연재하기로 하였습니다. ....○
- ... 어린이들이 평소 학교와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비...
- ...록 작은 것이지만 거기에서 생각을 더해가고 문제를 발...
- ...견해낸 여러 이야기들을 하나 하나 읽어 갈때 우리의 앞...
- ...날은 펄 밝고 희망적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을...
- ...것입니다. .... <편집자주> ....○

## ■ 국민학생부 ■

우수상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

### 양면 천칭

김 세 희

<남원 용성국민학교 제 5 학년>

지난 1학기 산수시간이었다. 학교에서 국어, 사회등 여러 과목을 공부하지만 산수 시간이 돌아오면 별로 흥미를 갖지 못하고 짜증스러울 때가 있었다. 그런데, 그날 산수 시간에 선생님께서는 각 분단에 천칭을 준비하도록 해서 무엇인가 재미있는 산수 시간이 된 것 같았다.

그 날 공부할 내용은 분모가

다른 분수 계산식이었다.

선생님께서 분모가 다른 분수 계산을 할 때에는 그 원리를 천칭을 가지고 실험해 보라고 하셨다. 우리는 한 분단이 여섯명씩이 되어 천칭 한 대로 실험을 하였다. 처음에 천칭의 바늘이 천칭 눈금의 한 중앙에 위치하게 미리 준비해 온 동전과 추를 가지고 실험을 하였다. 오른쪽에 추 한개를 놓고

왼쪽에 동전을 세개 놓았더니 바늘이 가운데에 멈추어 균형이 잡혔다. 다음에 오른쪽에 추 한개를 더 올려 두개로 하였더니 왼쪽에는 동전이 모두 여섯개가 되었을 때 바늘이 중앙에 멈췄다.

이 실험으로 분수에서 '분모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분수의 크기는 같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한 분수를 이름이 다른 같은 분수로 만들수 있어 분수 계산식을 풀 수 있었다.

그날 따라 산수 시간이 아주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때 나는 다른 의문이 생겼다. 왜냐하면 산수 시간에 실험을 서로 먼저 해 보려고 다투었기 때문이다. 우리쪽 세명이 먼저 하려고 했더니 반대쪽 세명이 자기들이 먼저 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여섯명이 한 분단이 되어 실험을 할 때 내 쪽에서는 눈금을 보고 잘 알수 있으나 반대쪽에서는 눈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편이 있었다.

천칭 한대씩 더 주었으면 좋을 것 같았다. 그러나 학교에 있는 천칭은 모두 가져와서 사용했으므로 천칭은 더 줄수 없

었다.

나는 그 때 ‘천칭을 양쪽에 서는 볼 수 없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그 후 나는 친구와 다투었던 일로 천칭에 대하여 여러날 궁리하다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천칭의 눈금이 있는 다른 쪽에 눈금을 그려 붙이고 두꺼운 종이로 바늘을 만들어 붙였다. 그랬더니 이제는 양쪽에서 눈금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천칭은 내가 종이에 눈금을 그려 넣었기 때문에 오래갈 수 없었다. 그래서 과학실에 들어가 부서진 천칭에서 눈금이 그려진 눈금판과 바늘을 떼어내어 아버지께 말씀드려가지고 용접하는 곳에 가서 붙였다. 이제는 아주 튼튼하고 양쪽에 눈금이 그려진 천칭이 되었다.

한 쪽 면에서만 볼 수 있었던 천칭이 양쪽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안 우리 선생님께서는 ‘꼬마 발명가’라는 별명을 붙여 주시고 과학선생님께서 ‘양면 천칭’이란 별명을 주셨다. 내가 만든 천칭도 ‘양면 천칭’이라 이름을 지어 주셨다.

양면 천칭을 만들고 나서 나에게도 또 하나의 의문이 생겼다. 나의 친구 ‘은경’이네 집에서 금은방을 경영하는데 그곳에서 사용하는 천칭도 한 쪽 면에만 바늘과 눈금이 붙어 있다. 그것도 내가 만든 양면 천칭과 같이 양쪽에 눈금과 바

늘이 붙어 있다면 은경이네 아빠와 오신 손님들에게 많은 불편을 덜어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또 식육점에서 사용하는 용수철 저울도 눈금판과 바늘을 양쪽에 만들고 싶다.

처음부터 저울 만드는 공장에서 이러한 것들을 양면에 눈금판을 붙이고 바늘을 붙여 상인과 소비자간에 서로 믿고 편리하게 사용했으면 한다.

나는 ‘우리 인간의 두뇌는 끝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선생님의 말씀이 옳다는 생각이 든다. 또 발명가는 따로 있는 것

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주의 깊게 살펴 보고 궁리하는 사람일 것이다.

세상에 없는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들이 쓰고 있는 물건도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없을까?’ 하는 의문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더 열심히 연구하여 우리 생활에 편리한 물건을 만들고 싶다.

나는 지금 그때 ‘양면 천칭’을 발명하게 된 분수 공부를 했던 산수 시간을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

## 중학생부

### 우수상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상>

## 나의 발명

장 미 향

<영광 대마중학교 제2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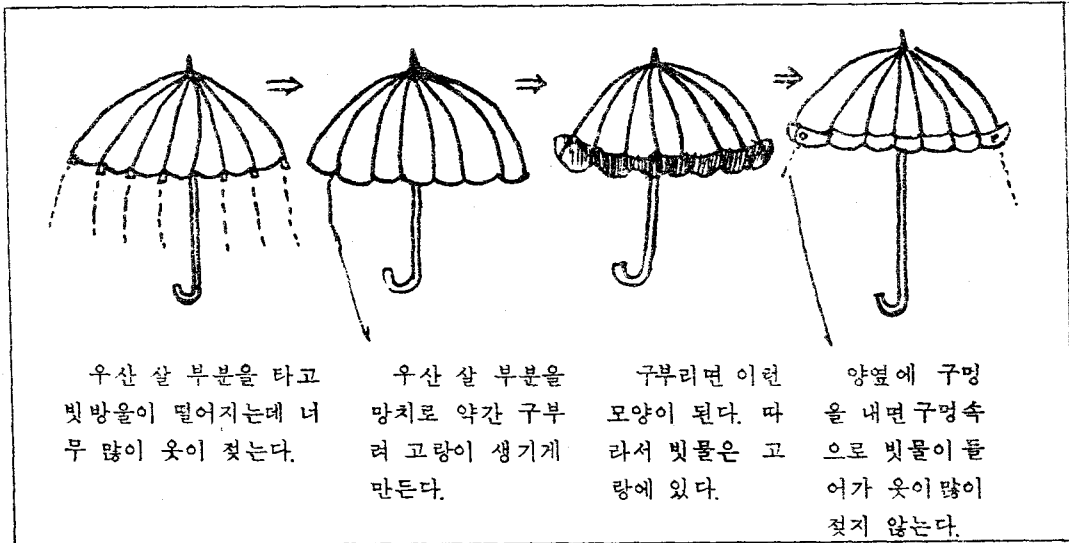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그 리 반갑지도 않은 비였다.

우리집은 다행히도 추수를 일찍 끝내서 별 피해는 없었지만 옆집은 아직까지 탈곡을 안 해서 여간 걱정하지 않는 것이었다.

엄마와 아빠도 우리집 일인 마냥 비가 일론 그치고 해가 비취워서 비가 말라 타작을 빨리 끝냈으면 하고 바라고 계시

는 것이었다. 나는 여기서 한번 우리 농민의 마음을 쉽게 터득할 수 있었다. 하여튼 오늘은 정말 신경질 나는 월요일이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니 걸어가는 아이들도 없고 또 아침 자율학습 시간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8시 20분 차를 타려고 하는 이도 없으니 차는 자연 밀릴수 밖에 없었다. 거기다가 가던날이 장날이라고

◎ 제 9 회 전국 초·중학생 작문·만화 현상모집(3) ◎



오늘이 영광장날이어서 속엿는 아주머니들은 일찍가서 장사해야 된다고 아우성을 치며 학생들보다 더 먼저 달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놈의 우산도 좀 없었으면, 200명이 다 되는 인원수가 각자 1개씩 우산을 들고 있으니 들어 가면서도 손은 다른사람 눈을 찌르지 않나 발은 신발을 밟지않나 눈은 제눈 찌르지 않나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워야 무사히 교학에까지 도착할 수 있을것 같았다.

이래 저래 사람들의 목소리가 차속을 울리며 차는 달리는 가운데 정류장 앞에서 급정거를 했다.

차장도 학교앞에서 내려 줄 것이지.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차비도 비싸게 받으면서 무슨 마음 심뽕이 그래?

아이들의 투덜대는 목소리가

우리는 정류소 앞에서 학교까지 200m나 되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

우산은 좁고 가방은 무겁고 하여 나는 모두 젖어버렸다. 또 그나마 시험시간이 늦어 부리나케 달려가는 바람에 옷은 흠뻑물에 튀기어 흥한 꼴이 되어 버렸다.

피로한 마음으로 달려가 시험을 보니 시험도 잘 보아 질리가 없을터.

겨우 연필을 굴려 안맞을 정도의 점수를 받아놓고 의자에 멍하니 앉아 그 일을 생각하니 머리속에 화만 짹짹 차있어 신경질만 더났다.

음악시간에도 다목적 교실 피아노 앞에 앉아 얼드려 누워서 헛생각만 하고 있었을뿐 노래부를 생각은 아예 앓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졸음이 오고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이미 자고 있었던 것이다. 나

는 눈만 말뚱말뚱 뜨고 무슨 일일까 하고 궁금해했다. 선생님과 아이들의 시선은 모두 내게 있었다.

옆에 있던 미자가 옆구리를 푹 찌르며 가르쳐 주었다.

클췌 음악 선생님이 노래를 얼마나 열심히 배웠나 시험치듯 해 본다는 것이 그만 재수 없게 내가 걸렸던 것이다.

나는 그제서야 얼굴을 붉히고 책상만 쳐다보고 멍하니 앉아 있으니 1교시 끝 종소리가 들렸다. 애들은 다목적 교실을 내려와서도 웃어댔다.

그럭저럭 재미없는 가운데 7교시가 끝났고 나는 또다시 차에 올라탔다. 비는 아침보다는 약했지만 그래도 세찬 편이었다. 집에 가자마자 나는 엄마에게 성난 목소리로,

“엄마? 우산 큰거 하나 사줘, 우산때문에 옷, 가방 모두 젖어 버렸단 말야”

엄마도 즐겁지는 않으셨겠지.  
그렇게 말했으니까.

“무슨 계집애가 그렇게 떠드  
니. 우리 집에선 네가 대장  
이구나. 아무리 옷이 젖었다  
지만 지금 당장가서 사울수  
도 없는 노릇이고 그 기운갈  
으면 네가 하나 만들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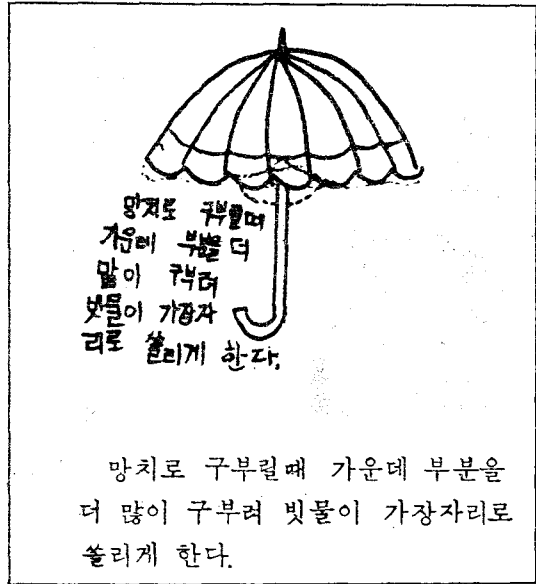
“그래 좋아 좋단 말예요. 씨  
이, 누가 그런거 못만들줄 알  
아요. 내가 사흘밤 사흘낮을  
꿨던지 말던지 상관말아요”

막상 이렇게 해놓고 책상앞  
에 앉으니 마땅한 생각이 얼른  
나질 않았다. 나는 곰곰히 생  
각했다. 나는 우산의 단점을  
먼저 알아야 겠다고 생각했다.

‘우산의 살은 너무 많아, 그  
렇기 때문에 빗방울도 우산  
살을 타고 떨어지기 때문에  
옷도 많이 젖지. 내가 생각  
한 것은 바로 이거야. 그런  
데 어떻게 해야되지. 어떻게  
해야... 아 그렇구나! 우산  
을 오그리면 물이 떨어지지  
않고 흐르지. 거기다가 구멍  
을 뚫어주면 빗물은 그 구멍  
속으로 떨어지게 되고 옷도  
그렇게 많이 젖지는 않을거  
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일 가  
장자리가 높고 가운데 부분이  
낮다면 그게 말쟁이란 말이야.  
아! 그래, 망치로 구부릴때  
가운데 부분을 더 많이 구부리  
면 가장자리는 자연히 낮아지  
게 되지. 그러면 빗물은 가장  
자리로 쏠리고 일은 이제 끝나  
는 거구.

좀더 우산에 대해 생각해 보



자.

우산을 씌울때 천은 비닐로  
하면 잘못하다가 떨어지기 쉽  
고 천으로 하면 물이 새어버려  
우산의 기능을 침해하기 때문  
에 대부분 방수가공을 해서 그  
두가지를 만족하게 한다. 그런  
데 토란잎같이 물이 닿기만 하  
면 미끄러 버리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것이 쉽게 썩어 버  
리지만 않는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 같다. 그러  
나 이걸 내가 해결하기에는 너  
무나 어려운 것이다. 전문적인  
지식과 도구가 필요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된다. 내가 해  
결하기로 한것에 대해 만족하  
고 더 많은 것을 알고 하는 정  
신과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이젠 엄마앞에 떳떳하게  
나설수도 있겠지. 정말 인간의  
힘은 놀라운 것이야. 아이 배  
고파... 세 끼니를 굶었더니 힘

이 하나도 없다.

“애 어서 밥이나 먹어라. 고  
생했다. 그리고 엄마가 아깐  
미안했어”

“아네요 엄마, 제가 더 죄송  
해요. 그리고 엄마 때문에  
생각도 했잖아요. 하느님이  
여 농민에게 미안하지만 내  
일 저녁 10분동안만 비를 내  
려 주소서”

“예끼 녀석두” ☼

